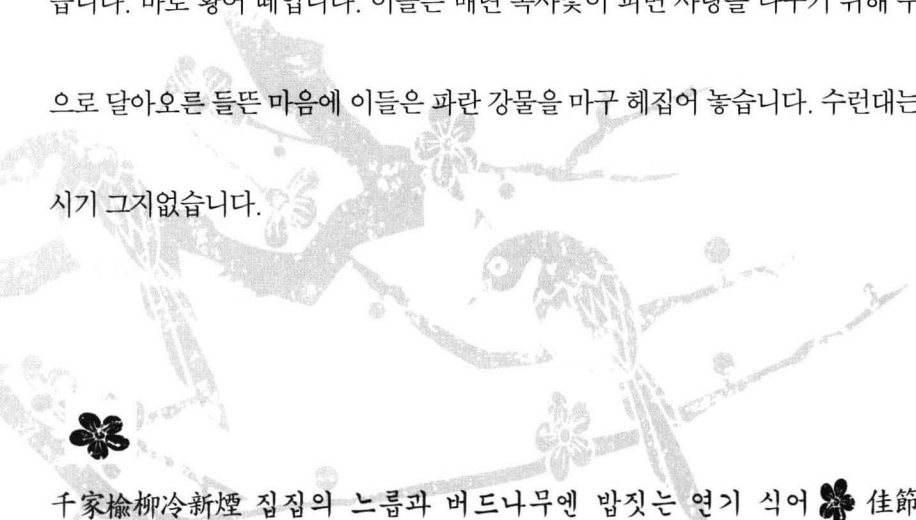










 산들바람 불자
 나귀 발걸음 더욱 재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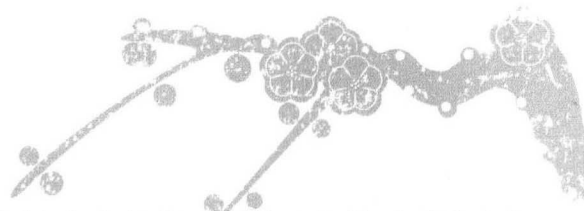
기래완

4월의 섬진강은 바야흐로 봄이 절정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섬진강 일대는 매화와 산수유를 통하여 봄이 가장 빨리 찾아오는 곳입니다. 지금 내 시야에는 무르익은 봄의 풍광이 가득히 펼쳐져 있습니다. 섬진강은 지리산과 백운산을 양쪽으로 끼고 마치 여인네의 허리띠처럼 길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 파란 물길을 타고 먼 바다로부터 반가운 길손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바로 황어 떼입니다. 이들은 매년 복사꽃이 피면 사랑을 나누기 위해 무리를 지어 섬진강으로 올라온답니다. 사랑으로 달아오른 들뜬 마음에 이들은 파란 강물을 마구 헤집어 놓습니다. 수런대는 파란 물결에 부서지는 사월의 햇살이 눈부시기 그지없습니다.



千家榆柳冷新煙 집집의 느낌과 버드나무엔 밥짓는 연기 식어  佳節驚心客路邊 나그네길에서 명절날임을
 깨닫고 깜짝 놀랐네  微有天風驢更快 산들바람 불자 나귀 발걸음 더욱 재지고  一經春雨鳥增妍 한 차
 례 봄비에 새들은 더욱 어여배졌네  桃花多事圍山店 복사꽃은 활짝 피어 산 주막을 에워싸고  蝴蝶隨人
 上野船 호랑나비는 길손 따라 나룻배에 오르네  滿眼清江三十里 시야 가득한 맑은 강 삼십 리 길에  黃
 魚如錦不論錢 비단빛 황어를 값도 치지 않네

기래완 _____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국문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국한문학 전공)했다. 문학박사.
 현재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홍익대 겸임교수이다.
 저서에 《黃梅泉詩 研究》, 역서에 《東詩話》《精言妙選》《據梧齋集》
 《高宗辛丑儀軌》 등이 있다.



백여 년 전에 섬진강가 구례에 은거하였던 한 시인은 섬진강의 4월 풍광을 문자로 생생하게 붙잡아 두었습니다.

구한말 순국시인 매천梅泉 황현(黃玗: 1855~1910)의 시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시 제목 대신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작년 신묘(1891)년 봄에 압강鴨江 길을 가다가 ‘산들바람 불자 나귀 발걸음 더욱 재지고’ 라는 시구를 얻었다. 올 한식날에 다시 강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우연히 그때 생각이 나서 한 편을 완성하여 짓게 되었다.” 그러니 결국 일 년 만에 완성한 시라는 것이지요. ‘압강’은 섬진강의 한 지류입니다.

한식은 지금은 잊혀져가는 명절이지만 예전엔 추석 못지않은 큰 가절이었지요. 이날이 되면 나라에서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로 지핀 불씨를 각 관청에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조상의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냅니다. 이날은 또 먼 옛날 금산에서 불에 타죽은 진짚나라의 충신 개자추介子推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불을 때지 않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만은 어느 마을에서건 밥짓는 연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느 낯선 마을을 지나던 나그네는 밥 때가 되었는데 어느 집에서도 밥짓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음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문득 한식날임을 깨닫고 깜짝 놀랍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명절날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가 무슨 일로 길을 나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섬진강의 봄 풍광이 너무 좋아서 지척의 명절도 망각한 채 며칠 간의 유람 길에 나선 것인지도 모르지요. 시원하고 감미로운 산들바람이 불어오자 나귀의 발걸음이 갑자기 재(빨라)집니다. 봄바람에 나귀도 기분이 좋아진 것이지요.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통방울 눈에 미소를 담백 머금고, 두 개의 긴 귀를 쫓긋거리며, 커다란 엉덩짝을 좌우로 흔들며, 총채 같은 꼬리를 위로 치킨 채,

신명나게 발걸음을 옮겨 딛는 나귀의 모습이! 한 차례 지나간 봄비에 새들은 축축이 젖어서 더욱 어여뻐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길가의 숲에 모여 앉아서 젖은 몸을 말리고 있습니다. 몹시 궁금하군요. 그때 나그네가 보았던 새들이 무엇이었는지? 황갈색 가슴을 가진 곤줄박이의 무리였을까? 아니면 잿빛 깃을 가진 박새의 무리였을까요? 물론 어치와 같은 큰 새였을 수도 있겠지요. 이 구절의 ‘더욱’이란 의미로 쓰인 ‘증增’자는 앞 구의 ‘갱更’자와 짝을 이루는 글자인데, 아마 이 한 글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일 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산길 거의 주막은 이제 막 화사하게 만개한 복사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론 나그네는 그곳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잠시 쉬었겠지요. 그때 나그네는 문득 무릉도원을 상상했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그네는 물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룻배에 오르는데, 언제 따라왔는지 호랑나비가 함께 배를 타는군요. 맑은 강물 위 삼십 리의 여정 동안, 섬진강 곳곳의 나무마다 황어가 지천으로 쌓여 값도 따질 수 없을 지경입니다. 황어는 크기가 고등어 만만해, 은어처럼 바다에서 살다가 봄철에 강으로 올라와 산란을 하는 물고기입니다. 혼인색을 띤 황어는 몸 전체가 승려의 가사처럼 노랗게 물들어 ‘가사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매천 황현은 왜놈들에 의해 대한제국이 망하자 비분을 참지 못하고 음독 자결한 순국시인입니다. 그는 죽으면서 <절명시> 4수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천고의 역사를 회고해 보니, 세상에서 지식인 노릇 참으로 어렵구나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라는 구절이 가슴을 치는군요.

지금 먼길을 떠나는 한 때의 기러기가 섬진강을 거슬러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편에 안부를 실어 보냅니다. 4월 섬진강의 풍광도 함께. **추천**